강릉원주대신문

창 간 | 강릉대신문 1979년 6월 30일 / 원주대학신문 1991년 9월 17일
재창간 | 강릉원주대신문 2009년 4월 13일
발행인 | 박덕영 주간교수 | 김두현 편집인 | 송지훈

TH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109호

2면 대학
단과대학들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
강릉원주대학교 전공박람회 현장을 가다

4면 일반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추계대회 개최
언론원의 길을 묻다

5면 사회
강릉시, 숏폼으로 시책이슈 홍보
중앙도서관, 배움과 예술의 장이 되다

6면 특집
전국 대회 금상의 GHOST

7면 기획
들썩들썩 동아리제

‘강원대학교’통합 D-3개월, 무엇이 바뀌나


▲강릉원주대학교 전경(좌), 강원대학교 전경(우)

2026년 3월, 강원도 내 ‘1도 1국립대’ 체제가 공식 출범한다.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의 통합이 최종 승인되어 ‘강원대학교’라는 교명 아래 학생 수 약 3만 명, 입학 정원 6천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국가거점국립대학’이 탄생할 전망이다. 역사적 통합을 앞두고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지역 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상적인 비전 제시를 넘어 “지금 당장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실질적인 질문에 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원대학교라는 단일 교명 아래 춘천, 삼척, 강릉, 원주 4개의 캠퍼스가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 운영된다. 통합된 강원대학교는 기존의 두 대학 체제를 벗어나 ‘1도 1국립대’ 원칙으로 하나의 통합 대학 아래 4개의 캠퍼스가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멀티캠퍼스 체제로 전면 개편되며, 이 과정에서 통합 총장 1인 체제하에 각 4개 캠퍼스에는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총장급 캠퍼스 총장이 임명되는 분권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각 캠퍼스의 총장은 입시, 교무, 학생 업무 등 주요 권한을 위임받아 캠퍼스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가진다.

‘글로컬대학 30’ 사업 선정에 따라, 확보한 재정은 각 캠퍼스의 특성화 전략과 교육 혁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통합 대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4개의 캠퍼스를 조율하는 ‘대학혁신전략실’과 같은 새로운 행정조직도 신설될 예정이다. 통합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되었다. 학과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인력 감축이나 재배치 또한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양 대학 간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학과에 대해 2032년까지 통합 이후에도 강원대학교 입학 당시 기준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보호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필요한 학문 분야의 경우, 여러 캠퍼스에 복수의 학과로 존재 할 수 있다.

‘국내 최대 국가거점국립대학’이라는 거대한 밑그림은 완성되었다. 앞으로 ‘강원대학교’라는 새 울타리로 들어올 신입생들, 현재 재학 중인 학부생들, 그리고 통합 대학의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게 될 졸업예정자들까지, 이 거대한 변화가 어떤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명확히 체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 최대’라는 외형적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캠퍼스별 특성화를 성공시켜 그 혜택이 학생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의 통합은 글로컬 대학 30을 선도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혁신적인 대학 모델을 구축하고, 학문적 시너지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도 1국립대’ 실현을 통해 두 대학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번영에 크게 기여하며 지역 인재 육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김규완 기자

79주년의 개교기념식, 강릉원주대학교로서 마지막 개교기념식



▲대학발전 유공 표창 교직원에게 시상하는 모습

사진=이준기

우리 대학이 개교 79주년을 맞이해 지난 11월 10일, 교육지원센터(C9)에서 개교기념식이 치러졌다. 개교기념식에는 수상자 포함, 각 부서의 교직원 다수가 참여하여, 비교적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우리 대학의 역사를 담은 영상을 시작으로, 대학에 이바지한 교직원과 학과, 학생에게 다양한 수상이 이어졌다. 수상에는 대학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구성원부터, 교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교직원, 우리 대학 핵심역량에 걸맞는 우수한 학우들까지 여럿 포함되었다.

내년부터 우리 대학은 강원대학교와 개교기념일을 맞춰 가기에 강릉원주대학교로서는 마지막 개교기념식이였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 이렇게 기념일마저 강원대학교에 맞춰 가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운영 일원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릉원주대학교가 되는 통합 과정에서도 원주대학교는 자연스레 강릉대학교의 개교기념일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체계에서 일원화를 진행했었다. 이번 글로컬대학 사업에서는 강원대학교가 거점 대학교로 중심 역할을 맡으면서 우리 대학 역시 이에 발맞춰 변화를 준비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개교기념식부터 동아리제까지, 올해 말의 주요 행사는 전부 마무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강원대학교와의 성공적인 통합을 마무리하는 일이다. 강릉원주대학교의 이름은 역사로 남겠지만, 강원대학교라는 이름 속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교수, 교직원, 학생 등 교내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다.

이준기 기자

단과대학들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





▲(좌)강원대학교 (우)강릉원주대학교

우리 대학은 내년 3월 강원대와의 통합을 위해 다양한 구조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멀티캠퍼스 기반의 융합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 성공 실현"을 목표로 통합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단과대학들은 어떠한 변화와 혁신을 구상하고 있을까. 다음은 학장들과의 일문일답

인문대학장에게 묻다

Q1. 독어독문학과가 사라지는데 다른 학과가 신설될 계획이 있는가?

학과 신설은 대학 전체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현재 인문대학에 새로운 전공학과를 신설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인문대학에 자유전공학과(25명)를 신설하여 26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방침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 자유전공학과 입학생들은 1년 동안 재학하면서 국문과, 영문과, 중문과, 철학과, 사학과 등 인문대 5개 학과에 대한 전공탐색을 한 뒤 2학년에 진입하면서 이 중 1개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때문에 우리 인문대학에서는 자유전공학과 학생들이 전공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하여 전공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지니게 하고자 한다.

Q2. 통합에 대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첫째, 강원도내 4개 캠퍼스가 1개 국립대로 통합하여 동일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대학의 보유 역량을 4배로 확대함으로써 큰 시너지 효과를 지닐 것이다.

둘째, 통합 이후 각종 학칙과 규정이 재정비되면서 구성원과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선진적인 방안들이 제정되고 강구될 것이기에 매우 유리한 학습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대학 조직 역시 캠퍼스 간 중복을 피하고 불필요한 기구들을 축소하면서 슬림화되어 재정 건전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과대학장에게 묻다

Q1.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를 축으로 한 실무형 교육혁신과 멀티캠퍼스 기반 학사 구조 혁신을 통해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학생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바뀌나?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 중심의 실무형 교육혁신은 단순히 제도의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방식과 교육 경험, 그리고 진로 준비 과정 전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첨단 분야를 축으로 한 교육은 기업이 실제 활용하는 기술과 도구를 기반으로 실무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이론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프로젝트·실습 기반 교과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졸업 이전에 실전형 포트폴리오와 현장 경험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실무형 교육혁신과 더불어 멀티캠퍼스 기반 학사구조 혁신이 이루어지면 캠퍼스 간 장벽이 낮아져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한층 넓어질 것이다. 소속 캠퍼스와 관계없이 필요한 교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마련될 수 있고, 실험·실습 장비와 연구 공간, 기업 연계 프로그램 등의 자원도 공동 활용 체계로 전환됨으로써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연구 경험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멀티캠퍼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체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확대되는 경우 인턴십·취업 기회 또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인공지능·반도체 기반의 실무형 교육혁신과 멀티캠퍼스 학사구조 개편은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AI·반도체·데이터 기반 학습 도구들이 여러 학과와 연계되면서 융합 전공 및 부전공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학생들은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결합하여 자신만의 전문성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으며, 학과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통해 개개인의 관심과 진로에 맞춘 맞춤형 학습 트랙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Q2. 통합에 대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대학교의 1도 1국립대학 통합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첫째,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학문 간 이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융합 전공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캠퍼스 간 공동 강의와 온라인 공동학위 과정 등도 신설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대학 규모의 확장을 통해 강의와 연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교수진이 한 체계 안에 모임으로써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역혁신 사업의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지역별 전략 분야를 기반으로 한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동과 영서 지역의 통합은 강원권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또한 단일 국립대 체제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통합을 통한 예산 및 자원의 전략적 재배분은 중복 투입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대학 브랜드 파워의 상승은 국내외 평가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과학대학장에게 묻다

Q1. 자연과학대학 자유전공학과는 어떤 학과인가?

자연과학대학 자유전공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특정 전공을 확정하지 않고, 화학신소재·생물·물리·수학·데이터사이언스·대기환경과학 등 자연과학 전 분야를 폭넓게 탐색한 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거나 융합 전공을 설계할 수 있는 학과이다. 기초과학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Q2. 학생들은 이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나?

먼저 1학년 때 자연과학 전체를 아우르는 기초과학 과목들을 폭넓게 수강하고, 이를 통해 화학 실험부터 생물학 개념, 물리의 기본 법칙, 수학·통계적 사고, 대기와 환경의 기초까지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된다. 이후 전공탐색 프로그램, 멘토링, 연구 체험 등을 거치면서 자신에게 맞는 전공 또는 융합 분야를 선택하게 된다.

Q3. 자유전공학과만의 장점은 무엇인가?

첫째, 전공을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되어 자기 적성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여러 전공을 넘나들며 공부하기 때문에 융합형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셋째, 전공 변경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진로에 맞춰 커리큘럼을 설계할 수 있어 유연한 학업 운영이 가능하다.

Q4. 대학 통합을 통해 자연과학대학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연구 역량의 확대와 시너지 창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통합을 통해 연구 인력, 장비, 인프라가 하나로 모이면서 학문 간 융합 연구가 훨씬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가의 실험 장비나 분석 장비를 공유하여 연구 효율이 높아지고, 자연과학대학 내부에서도 새로운 연구 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는 기존 단과대 규모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대형 공동연구 과제 수주 가능성을 더 크게 열어 줄 것이다.

둘째, 교육 자원의 확충 및 학생 선택권 확대이다. 대학이 통합되면 전공과목, 선택 교양, 실험·실습 과목 등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이 넓어지므로 다양한 교수진 확보, 보다 체계적인 기초과학 교육의 기회, 전공 간 융합·복수전공의 장벽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기초과학 영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 전공 간 협업이 유연해지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커리큘럼 설계가 가능하다.

셋째, 학과·대학 차원의 브랜드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통합된 대학 체계는 규모 면에서도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는 자연과학대학의 위상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더 큰 학교는 더 많은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내외 교육과 연구의 협력 네트워크 확장, 우수 교수·우수 학생 유치에도 유리해진다. 결국 자연과학대학의 브랜드 가치가 증가하고, 더 높은 연구 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예술체육대학장에게 묻다

Q1. 통합, 예술체육대학 교육환경에 어떤 변화 가져오나?

이번 통합은 캠퍼스 기능 특성화와 대규모 재정 투입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만큼, 두 대학이 보유한 교육·연구 자원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되며, 학내 구성원들은 그 영향이 단순한 조직 변화를 넘어 예체능 교육의 확장과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통합으로 확보된 재정과 멀티캠퍼스 체제는 공연장, 전시장, 디지털 스튜디오, 체육관 등 예술체육 실기교육을 위한 전문 실습공간의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캠퍼스 간 인프라 공동활용이 가능해지면 멀티캠퍼스 구조를 활용하여 학과 간 자원 공동 활용도 가능해질 수 있으며, 수업 선택권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의 다변화 등으로 학생들은 기존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창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은 학사구조 개편과 더불어 전공 간 융합 교육의 촉진이라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한다. 학사구조 개편은 예술 체육 교육의 변화를 이끌 요소로 꼽힌다. 예술·체육 분야가 디자인, 공학, 콘텐츠, 경영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며, 멀티캠퍼스 기반의 융합 교육이 강화되면 예술, 체육 전공과 기술·경영·콘텐츠 분야를 아우르는 창의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원격교육 시스템 도입으로 실기·이론을 병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교육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보다 실용적이고 산업친화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강릉캠퍼스가 '지학연(지역·학문·연구) 협력 거점'으로 특성화되는 만큼, 지역 문화·예술 기관과의 연계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예술 체육 단체와의 협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 축제, 예술 체육 관련기관, 문화 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은 기존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현장실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더불어, 통합 대학의 규모 확대로 인한 글로벌 교류 체계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워크숍,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국제적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 역시 커질 것이며, 통합을 통해 학생들은 더 넓은 교육·창작 네트워크 속에서 학문적·예술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 행정 통합에 따른 혼선, 전공 정체성 유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하며, 실기 중심 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학사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 지원의 세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통합이 예술체육대학의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참여가 향후 예술 교육의 질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진다.

Q2. 통합에 대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통합에 대해 예술체육대학 구성원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변화는 '교육·연구 인프라의 확충과 확장된 예술 체육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실기 중심 교

육체계를 갖춘 예술체육대학에서는 핵심 시설의 확장이 학습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강릉캠퍼스가 지역 기반 학문·연구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확장된 예 체능 네트워크' 이다. 그러한 플랫폼 형성은 두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이 공유되고, 지역 문화산업과 공공 예체능 영역에서 지역 기관과의 연계 활동도 강화되어,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번 통합을 통해 우리 예술체육대학 학생들이 보다 큰 무대에서 배우고 도전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종합적으로, 통합이 예술체육대학의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예술체육대학 구성원들은 이번 통합이 단순한 대학 구조 개편을 넘어, 교육환경의 전반적 질을 향상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합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와 환경들이 향후 예술·체육 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대학장에게 묻다

Q1. 통합을 통해 멀티 캠퍼스 기반 고등교육 혁신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대학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보건복지대학에서 통합으로 인해 가장 크게 변화하는 지점은 지역특성화 기반 교육의 확장이다.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다문화학과,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이미 지역기관과 연계한 지역특성화 계약학과 모델을 운영하며 지역수요 기반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통합을 통해 이 모델은 강원 전역으로 확장될 수 있게 된다. 원주의 의료·보건, 강릉의 문화·관광, 춘천의 미디어 산업, 삼척의 복지·돌봄 기반은 모두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니고 있어, 통합 이후 학생들이 캠퍼스 경계를 넘어 다양한 실습·현장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보건·복지·교육·미디어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교육도 가능하게 한다. 결국 통합은 보건복지대학의 지역기반 교육을 하나의 지역생태계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Q2. 통합에 대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통합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학생들이 강원 전체를 하나의 학습무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특성화 계약학과 모델이 확대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특성과 진로에 맞는 지역기관에서 실습·프로젝트·현장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정착형 인재 양성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또한 캠퍼스 간 공동강의, 공동 비교과, 융합전공 등이 활성화되면서 보건·복지·교육·미디어 등 실제 지역사회 문제와 연결된 다학제적 학습이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학생들에게는 더 폭넓은 선택지를, 지역사회에는 더 전문화된 인재를 제공하게 되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통합 강원대가 이러한 상생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면, 학생 교육의 깊이와 지역발전의 폭이 동시에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대학장에게 묻다

Q1. 멀티캠퍼스 기반 고등교육체제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다. 과학기술대학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과학기술대학은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7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통합강원대 출범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학사구조의 변화에 있는데 과기대 컴퓨터공학과는 춘천캠퍼스 IT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와 자동차공학과는 춘천캠퍼스 기계의용 메카트로닉공학과와 탑클래스학과로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된다.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는 첨단학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지역특성계약학과로 운영된다. 특히 탑클래스학과는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에서 동일한 학과명으로 춘천과 원주캠퍼스에서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Q2. 통합에 대해 가장 기대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이번 통합 강원대로의 통합은 지역거점국립대학 체제로 통합됨으로써 학부의 입시경쟁력을 향상하고 대학원 또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캠퍼스 체제로 확대 개편됨으로써 원주캠퍼스의 특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이다.

생명과학대학장에게 묻다

Q1. 강릉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 가능한 학과가 단과대학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나 목표로 무엇이 있나?

춘천캠퍼스와 우리는 같은 국립대학교라고 하여도 탄생배경이나 배후자원이 다르고 그것은 대학의 규모뿐만 아니라 학과의 구성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당연히 규모가 큰 춘천캠퍼스는 우리대학에 있는 대부분의 학과를 가지고 있는 터라 통합 이후를 면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통합의 시작이며 대전제인 글로컬30의 사업계획에 따라 양대학에서는 각 캠퍼스별로 지역특성화를 목표로 하는 센터를 1개소 이상씩 설립하는데 합의하였고, 우리 강릉에서는 2024년에 자연기술센터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자연기술센터는 4대 핵심기술로 해양바이오·식품기술, 스마트농업기술, 친환경소재기술, 기후·탄소제로화기술을 선정하였다. 해양과 호수, 내륙, 산지, 습지 등을 두루 가지고 있는 강릉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생명과학대학이 빠질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생명과학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과가 자연기술센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대학의 교육·연구와 연계시키는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송지훈 기자

강릉에서 원주로, 더 가까이 다가온 전공
강릉원주대학교 전공박람회 현장을 가다

전공 선택은 대학 생활의 중요한 시작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나에게 맞는 전공은 무엇일까'라는 고민 속에서 진로의 방향을 잡지 못한다. 이에 우리 대학의 자유전공학부(학부장 이재용)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직접 체험하며 스스로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공박람회'를 개최했다. 강릉캠퍼스에서 시작된 이 행사는 원주캠퍼스로 이어지며, 학생 주도형 진로 탐색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전공을 '보는' 자리에서 '경험하는' 자리로

이번 전공박람회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전공의 실질적인 내용을 체험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재학생들에게도 복수전공, 융합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 되었다. 행사 현장에는 각 학과별 부스가 설치되었으며, 전임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여해 학과 소개, 진로 방향 안내, 맞춤형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참가 학생들은 여러 학과 부스를 방문하며 각 전공의 특성과 진로를 직접 듣고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는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 자체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의미가 컸다.

강릉캠퍼스에서 열린 제1회 전공박람회 – 진로 인식에 변화를 주다

지난 봄 강릉캠퍼스에서 열린 제1회 전공박람회는 학생들의 높은 참여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학생들은 인문·사회·자연·생명 등 여러 계열의 학과를 오가며 전공의 실질적인 내용을 직접 접하고, 선배 및 교수진과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희망 학과 선택 2차 조사에서, 전공박람회를 비롯한 전공 탐색 프로그램 참여 이후 65%의 학생들이 1차 조사와 다른 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공박람회는 학생들이 기존 전공 선택을 재검토하고 보다 적합한 전공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주캠퍼스로 이어진 제2회 전공박람회 – 더 넓어진 참여와 교류

이어서 열린 원주캠퍼스 전공박람회에는 보건·공학 등 다양한 계열의 학과와 강릉캠퍼스 소속 학과들도 함께 참여했다. 각 부스에서는 전공별 특성을 소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강릉캠퍼스와 동일한 형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참여 학생 최유미(자유전공학부 25학번)는 "이미 전공을 정해두었지만, 전공박람회를 계기로 원주캠퍼스의 다른 학과들도 선택지로 열어두게 되었다."며 "강릉캠퍼스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전공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

전공박람회는 어떻게 기획되었을까. 다음은 자유전공학부 이재용 교수와 일문일답.

Q. 전공박람회를 기획할 때, 어떤 취지와 방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전공박람회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에 대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고, 직접 비교·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단순히 전공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여러 학과를 경험하며 자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전공과 진로를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Q. 이번 전공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나 기대한 변화가 있는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대학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전공과 학문을 제공해야 하며, 학생들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전공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전공박람회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과 융합전공, 다전공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

Q. 앞으로 전공박람회를 발전시키거나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전공박람회가 하루 동안 진행되는 행사이다 보니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후속 상담·체험 활동을 이미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이 박람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공 정보를 탐색하고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의 전공박람회를 기대하며

강릉과 원주 두 캠퍼스를 잇는 전공박람회는 단발적인 학과 홍보 행사를 넘어, 학생들의 진로 설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 현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학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 전공박람회가 학생들의 전공·진로 탐색을 돕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전공박람회 포스터 사진=강릉원주대

천지유 수습기자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추계대회 우리 대학에서 개최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사진

(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한갑수 교수)는 전통 조경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5년 추계 총회 및 학술대회'를 10월 31일(금) 우리 대학교 생명과학 2호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통 조경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조경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학문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학회는 우리나라 전통 정원과 경관 유산의 학술적 연구, 보전, 계승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학술단체로, 국내 유일의 전통 조경 전문 학술단체이다. 조경학뿐 아니라 건축학·미술사·고고학·민속학·문화재보존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연계된 융합 연구의 중심에 있다. 오전 행사인 총회에서는 우리 대학 박덕영 총장의 동영상 축사와 이선우 부총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김영민 교수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강연 주제는 '어떻게 계획은 설계가 되었는가? – 초기 경성의 공원계획에서 현대 조경 설계까지'로서 근대 도시공원의 형성 과정에서 조경의 계획과 설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심도 있게 발표하였다.

오후 행사는 학술 발표회로서, 5개 분과 31개의 논문의 구두 발표와 16개의 설계 및 논문 포스터 발표가 이어졌다. 구두 발표는 생태·환경 분과, 보전·복원분과, 융합·활용분과, 정비·기술 분과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발표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4개 분과의 발표 후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통 조경 관련 현장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제도·정책 분과 발표회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전통 조경 제도와 정책, 실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한편, 2층 로비에서는 계획·연구 작품 분과의 포스터 전시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우리 대학 학생들의 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설계 및 연구 작품이 전시되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학문적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이 학회의 경우, 타 학회와 구별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술대회 다음날 이어지는 전통 조경 답사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번 학술대회 다음날에는 고성 왕곡마을, 청간정, 강릉미술관 등을 답사하였는데, 회원 및 일반인 50여 명이 참여하여 강릉에서 개최된 학회에서의 의미와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대학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와 답사는 전통 조경의 학문적 깊이와 현대적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강릉의 공간 속에서, 한국조경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학회 및 행사 관련 인터뷰

Q1.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나 프로그램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사진=환경조경학과 제공

–민·관·학의 협력이다. 전통 조경의 현장만으로, 전통 조경의 교육과 연구만으로, 그리고 관에서의 노력만으로 전통 조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작년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이번 행사에서도 민·관·학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 성과 발표에서도 학교에서의 연구 성과뿐만이 아니라 업계에서의 성과 공유를 위해 노력을 했다. 제도·정책 분과 발표회 운영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Q2. 학술대회를 통해 학회가 기대하는 학문적 혹은 사회적 성과는 무엇인가?

– 학회에서는 학술대회와 연구 성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과 연구의 방향을 공유하고 설정해 나간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전통 보전 및 복원의 기초 연구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세계유산, 첨단 분석 조사 기법 등이 소개되어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성과는, 연구 성과의 발표 시 업계와 국가유산청, 학회 연구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을 통해 전통 조경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Q2. 요즘 조경 분야가 기후 위기, 도시열섬,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과제와 맞닿아 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통 조경이 가진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전통 조경은 기후 위기와 도시열섬, 그리고 문화유산 보전이라는 현대의 중요한 과제 속에서 매우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전통 조경에는 자연 지형과 바람길, 물의 흐름을 고려해 미기후를 조절했던, 선조들의 기후 적응형 지혜가 담겨 있어, 오늘날 도시의 열섬 완화나 빗물 관리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전통 정원과 경관 유산은 생태와 문화가 조화된 통합적 경관 모델로서, 현대 조경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그린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 마지막으로 전통 조경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연속성을 지키며, 과거의 공간을 단순 보존하는 것을 넘어 지역 재생과 문화경관의 현대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전통 조경은 과거의 유산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시대 도시와 조경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Q4. 학회장으로서 앞으로 (사)한국전통조경학회의 비전과 중점 추진 방향을 소개한다면? 조경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조언.

– 한국전통조경학회는 전통 조경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기후 위기 대응, 생태복원, 자연 및 문화경관 관리 등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비전을 두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전통 조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해 한국전통조경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

조경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은 전통 조경을 과거의 유산이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의 자원으로 바라보길 바란다. 생태적 감수성과 디지털 역량을 함께 갖춘다면 어떤 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회도 젊은 연구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열린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강준혁 기자

2026년 언론원의 길을 묻다

24년의 발자취, 강릉원주대학교 신문사의 시간들

우리 대학 언론원은 2001년 9월 1일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에 따라 학내 언론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당시 각 단위사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언론기관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함으로써, 대학 내 소통 체계를 정비하고 언론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 현재 언론원은 신문사, 영자신문사, 방송국의 세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취재·편집·제작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언론의 기능과 윤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교육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신문사의 역사는 더욱 길다. 1979년 6월 30일 '강릉대학보'의 창간은 당시 지역 대학 언론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후 1989년 신년호(62호)부터는 제호를 '강릉대신문'으로 변경하여 독자층을 넓히고 보도를 강화했다. 2007년 3월 1일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이 통합되면서, 강릉대신문은 원주 캠퍼스 소식을 담기 위해 취재부를 신설하여 두 지역을 아우르는 보도를 이어갔다. 그리고 2009년 3월 1일 통합대학의 교명이 '강릉원주대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같은 해 4월 13일 '강릉원주대신문'이 새롭게 재창간되며 대학 언론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다. 현재 강릉원주대신문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고, 교내 매거진 모람모람이 상·하반기 두 차례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야기를 담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발행을 넘어, 대학 구성원들의 목소리와 시대 흐름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합 이후 언론원의 조직 개편은 어떻게 될까

2026년 3월로 예정된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의 통합은 단순한 학교 간 결합을 넘어, 행정 체계와 학생 조직 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내 공론장 역할을 해온 언론원의 향후 조직 재편은 많은 캠퍼스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운영하는 다(多) 캠퍼스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캠퍼스에 분산되어 있는 언론 조직을 하나로 묶어 '통합 언론원'이라는 형태로 운영할지, 혹은 기존의 자율성을 인정해 캠퍼스별 독립 언론 체제를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명칭 변경, 예산 조정, 업무 재배치 등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 구성 방식이나 콘텐츠 제작 체계 또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취재권역의 확대와 다양한 캠퍼스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 변화도 예상된다.

변화 속에서 맞이하는 기회와 과제

통합은 기회이자 위기다. 규모가 커진 통합 강원대학교는 더 넓은 취재 영역과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게 되며, 각 캠퍼스 간의 협업을 통해 더욱 풍부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캠퍼스의 특색을 비교·조명하는 기획 기사나, 대학 전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속 기획 등이 가능해진다. 방송과 신문,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융합형 보도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통합 과정에서 지역 캠퍼스 고유의 정체성과 구성원들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희석될 위험도 있다. 특히 언론 조직의 경우, 특정 캠퍼스 중심의 보도 체계가 강화될 경우 지역 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학생 참여 기회나 기자단 운영 방식 역시 재정비 과정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통합 대학의 언론원은 앞으로 '하나의 대학, 여러 목소리'라는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각 캠퍼스의 지역성과 자율성을 보존하면서도, 통합을 통해 생기는 새로운 취재 기회와 협업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조직 재편을 넘어, 대학 공동체의 다양성과 소통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송민선 기자

강릉시, 숏폼으로 시책이슈 홍보한다



▲강릉시 숏폼 홍보 사진= 강릉시

강릉시가 '숏폼'을 활용한 시정 홍보에 나선다. 숏폼이란 짧은 길이의 동영상 콘텐츠를 뜻하며, 빠른 정보 전달을 무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SNS를 통한 소통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숏폼 영상을 통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시정 정보를 일상적인 언어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제작된 영상은 12월부터 강릉시 공식 SNS 채널(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시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관리 운영 중인 전광판, 버스 승강장 등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해 홍보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강릉시청 공무원들이 숏폼을 통해 직접 부서별 정책과 시책을 소개하는 이번 사업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 강화로,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가 주목한 숏폼

강릉시가 숏폼에 주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릉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단오제 행사에 맞춰 '2025강릉단오제 스무살, 단오' 숏폼 공모전을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릉단오제를 담은 1분 이내의 영상이나 사진 콘텐츠를 본인의 SNS에 전체공개로 업로드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강릉시가 주최한 '댕댕이와 함께하는 강릉여행 숏폼 영상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감하며, 반려견과 함께하는 강릉 여행지의 매력적인 모습을 소개했다.

공무원들의 크리에이터화

각종 SNS 채널에서는 '임플로이언서'란 신조어와 함께 공무원들의 크리에이터화가 대두되고 있다. 임플로이언서란 직원을 뜻하는 영단어 '임플로이(employee)'와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다. 즉, SNS에서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최근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는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 유튜버 '충주맨'이 있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센스가 돋보이는 콘텐츠를 업로드해 94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으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많은 지자체에서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정책 홍보의 혁신

이처럼 행정기관이 직접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유행을 넘어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는 '충주맨'의 성공에서 보듯, 공무원이 직접 시민의 눈높이와 일상의 언어로 정책을 설명함으로써 행정의 문턱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전략이다. 패러디 영상으로 시민 공감을 이끌어내고, 숏폼을 통해 시정 정보를 알린 것처럼, 정책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직접 소통의 주체가 되어 더욱 친근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일방적인 정책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과의 쌍방향 대화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주 기자

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배움'과 '예술'의 장 열어

우리 대학 중앙도서관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배움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월 한 달 동안 시민과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양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프로그램은 '강릉해람시민대학–배움UP 시민역량UP' 이다. 이번 시민대학은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시민 참여형 교양강좌로, 강릉 시민과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중앙도서관 1층 해람라운지에서 매회 오후 6시 30분부터 열린다. 총 5회로 구성된 이번 강좌는 ▲11월 18일 박성욱 교수(전자·반도체공학부)의 「AI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19일 이상균 교수(사학과)의 「금강산 와유(臥遊, 누워서 노닐다)」 ▲20일 이계열 교수(국어국문학과)의 「인문학 독자를 위한 글쓰기 – 나를 보살피는 글쓰기, 느림과 알아차림」 ▲25일 유현지 교수(음악학과)의 「들으면서 이해하는 클래식 음악사」 ▲26일 장태영 교수(조형예술·디자인학과)의 「독화(讀畵) – 어제의 그림에서 오늘을 읽다」 순으로 진행된다.

중앙도서관은 11월 12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해람라운지에서 '어반스케치 체험특강 「펜으로 시작하라」'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제3회 지역예술작가 초대전'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어반스케치 강사 심명숙 작가가 지도를 맡았으며, 사전 신청자 60명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은 어반스케치의 기본 이론을 배우고, 펜 드로잉과 채색을 직접 체험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으로 지적 성장을 도모하는 시민대학과 실질적인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어반스케치 특강 모두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중앙도서관은 앞으로도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교양 함양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구심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윤재인 기자



▲어반스케치 포스터 사진=강릉원주대



▲강릉해람시민대학포스터 사진=강릉원주대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 전국 대회 금상의 GHOST

“금상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보자’는 신호라고 생각”

자작자동차 동아리 GHOST. 전국 대회의 활약

대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만 들여봐도 알 수 있듯, 교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동아리가 활동 중이다. 인기의 중심에 있는 밴드 동아리부터, 매 축제에서 활약하는 댄스 동아리, 교내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봉사 동아리. 이와 같이 본인들의 취미와 재능을 공유하는 여러 동아리가 산재해 있는 와중, 올해 전국 대회 금상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낸 동아리가 있다. 바로 자작자동차 동아리 ‘GHOST’.

GHOST는 우리 대학 원주캠퍼스 자동차공학과의 자작자동차 동아리로서 꾸준한 전국 대회 참가와 수상을 이어 나가는 동아리이다. 자작자동차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본인들이 직접 자동차를 설계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동아리로, 올해 전국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에브리타임에서 학우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전국 대회 금상의 GHOST. 어떠한 동아리이고, 또 이후의 목표는 어떨까.

다음은 GHOST 서장현 팀장(자동차공학과 21학번)과의 일문일답.

Q1. 자작자동차 동아리라고 하면 쉽게 감히 잡히지 않는다. 정확히 어떠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인가?

자작자동차 동아리는 말 그대로 자작자동차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동아리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구조에 대한 공부를 필두로 섀시(CHASSIS) 설계부터 부품 제작, 용접, 전기 배선, 파워트레인 구성, 주행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학생들 주도하에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주최하는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를 매년 참가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교에서 만든 자작자동차를 가지고 서로 경쟁, 교류하는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자작자동차대회의 경우, 2010년부터 매년 대회에 참가하여 2016년 EV 부문 수상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단순한 차량 제작을 넘어 팀워크, 문제 해결, 공학 프로젝트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GHOST의 가장 큰 특징이다.

Q2. 2023, 2024에 포뮬러 부문 장려상에 이어, 올해에는 포뮬러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금상을 수상했을 때의 소감과 수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먼저 올해 금상을 수상했을 때는 정말 기뻤다. 2023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장려상을 받으면서 아쉬움도 많았고,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다. 그래서 올해 금상은 단순히 한번 잘 나왔다는 의미라기보다, 지난 몇 년간의 시도와 실패, 노력과 개선이 한 번에 보상받은 순간이었다고 느꼈다. 금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설계 단계의 정확도다.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나 하중 해석을 반복하면서 차량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맞춰나갔다. 둘째는 경량화와 신뢰성 확보, 셋째는 테스트 주행 기반 차량 개선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팀원들이 문제를 발견하면 공유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며 해결하는, ‘팀워크’가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된다.

Q3. 포뮬러 부문 이외에 또 다른 수상 경험은?

GHOST는 포뮬러뿐만 아니라 2016년 EV 부문 동상, 2020년 KSAE 기술 아이디어 부문 동상, 2021년 EV 부문 장려상, 2022년 스마트 E-모빌리티 대회 EV 부문 동상과 같이 EV와 기술 아이디어 부문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내왔다.

Q4.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힘들었던 점은 있었나?

분명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다. 특히 포뮬러 차량은 작은 세팅 변화도 바로 주행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밤새 테스트와 수정이 반복되는 과정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 학업과 병행하다 보니 일정이 타이트해 체력적으로 힘든 때도 있었고, 설계나 제작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팀 전체가 멈춰서 다시 고민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오히려 팀워크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다. 지나고 보니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만드는 차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기반으로 극복해 낼 수 있었다.

Q5. 목표로 했던 포뮬러 부문 금상을 달성했다. 앞으로의 GHOST의 목표는 무엇인가?

금상이 우리 목표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 앞으로는 차량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신입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기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금상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보자’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장관상” (종합1등)을 목표로 GHOST는 계속 달려 나가고자 한다.

끝까지 해보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 도전을 멈추지 않는 GHOST

이외에 서 팀장은 인터뷰 마지막에 “우리 GHOST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동아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배워가며 성장하는 동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많은 학생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망설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입문 교육을 거치며 실력을 키워온 사례가 많다”고 말했고, 이어서 “우리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하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끝까지 해보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 도전할 마음만 있다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자 한다.”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이러한 GHOST가 지금까지 ‘달려온’ 연혁과 성과는 단순한 수상 결과가 아닌, 성장 과정의 기록이기도 하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GHOST, 이들의 열정이 앞으로 또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된다.

이준기 기자



▲본인들의 자작자동차를 통해 주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GHOST 동아리



▲GHOST의 팀원들 사진=GHOST 동아리

제79주년 개교기념 2025학년도 들썩들썩 동아리제











사진=윤재인

천지유의 시선

‘의견의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전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더 크게 말하고, 더 선명하게 갈라지는 사회가 되었다. 뉴스와 SNS 같은 각종 매체에서는 매일 새로운 말들을 쏟아지고, 순식간에 ‘옳음’과 ‘틀림’이 구분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대한 소음 속에서, 자연스레 입장부터 정하는 사람들이 되어간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 하나는 사라지는 듯하다. “나는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아직 모르는가?”

| 빠른 정보 소비, 깊이 있는 이해의 부재

최근 사회적 이슈 소비 방식은 대체로 속도가 중심이다. 누군가의 발언, 어떤 정책의 방향성, 새로 터진 사건이 우리 타임라인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도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속도가 ‘생각의 깊이를 대신한다는 점’이다. 정보는 넘치는데, 이해는 늘지 않는다. 논쟁은 뜨거운데, 숙고는 줄어든다. 이 현상은 특정 분야만의 문제도, 시민만의 문제도 아니다. 선명한 구도와 즉각적인 반응을 강조하는 미디어 구조, 복잡한 사안을 단순한 대립으로 정리하려는 언어, 그리고 틈새 시간에 세상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습관 등이 모두 합쳐져서 만들어낸 ‘집단적 피로감’이다.

| 사회적 시민성, 선택적 청취

이제는 소리보다 침묵이 더 의미 있는 시대인지 모른다. 의견을 내는 것보다 먼저 맥락을 파악하고, 출처를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견해를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지를 스스로 설정하는 일이다. 사회적 관심은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분노와 논쟁 속에서 서둘러 ‘편’부터 정하며, 그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를 넓히기보다 삶의 에너지를 조금씩 소모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넓어야 하지만, 정작 우리의 감정은 그 넓은 무게를 온전히 견디지 못해 쉽게 흔들린다.

지금 현시점에서 개인과 사회는 이슈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대신,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고,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과 화제에 집중하는 능력인 ‘선택적 청취’, 즉 소음에서도 핵심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소음과 우리가 던진 반응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지를 고민해야 한다.

영화 한 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공식 포스터

우리는 때때로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간다. 평범한 아침, 어제 보았던 풍경, 변하지 않는 일상 등 ‘그대로’의 감사함을 잊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는 우리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 이다.

한명의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

아내이자 엄마, 며느리, 그리고 누나로서 살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관심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림을 하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며 일상을 살아간다. 가족들 중 어느 누구도 그녀의 일상을 궁금해 하지도, 물어보지도 않는 외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 그녀는 큰 통증을 느끼며 병원을 찾고 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한다. 그녀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다른 가족도 힘들게 할까봐 울면서 시어머니를 죽이려고도 시도해보고, 단둘이 있을 때, ‘제발 죽어줘’라고도 말하며 울부짖는다.

당연함이 소중함으로

주인공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른 가족들은 그녀에게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녀가 영원히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관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처럼 대하였지만 그녀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노력하는 모습은 관객으로 하여금 ‘있을 때 잘하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일수록 당연히 내 곁에 있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홀대하는 경향이 있다. 연인에게는 매일 연락과 안부를 묻지만 부모님에게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이 영화는 이런 우리로 하여금 ‘엄마’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그 자리에 묵묵히 있을 때 우리는 당연시하는 게 아니라 감사히 해야 하는 것이다.

‘가족’의 죽음, 빈자리

가장 가까운 ‘엄마’의 죽음이라는 소재는 조금 뻔한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엄마’의 죽음만큼 보편적이고 가장 개인적은 죽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곁에 없을 때 느껴지는 빈자리는 그저 미안함과 그리움만으로 채워질지도 모른다. 그 빈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도, 채울 수도 없다. 묵묵히 있는다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언제나 당연히 곁에 있다고, 영원하지도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로 가족의 소중함을 조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송지훈 기자

한 컷 속으로



긴 여정 끝에, 우리 신문도 이제 마지막 호에 접어들었습니다. 후련한 마음, 아쉬운 마음, 그리고 기대감과 함께 이제 통합의 길로 들어섭니다. 새로운 이름 아래에서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듯,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월간한줄

9

22일
연이은 비 소식
강릉 ‘재난사태 해제’

26일
SK에 이어, 휘청이는 한국 전산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10

2일
두번의 장려상에 이어
GHOST, 전국 대회 금상

31일
한국, 세계의 중심으로
2025 APEC

11

6일
강릉과 원주의 마지막 교류
2025 GWNU E-SPORTS CUP

9일
꿈에 그리던 목표, 13년의 결과
FAKER 롤드컵 쓰리핏

10일
강릉원주대학교, ‘라스트댄스’
마지막 개교기념식